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2 SPRING



Care & Love



Medical Essay

백내장 수술 전에 챙겨요, 안내염
유방암, 재발과 뇌 전이 예방이 절실
급성충수염, 제때 치료 않으면 생명 위험
정형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우리 몸의 신비 - 오스굿씨병2

김택상 교수·진료지원부장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2 SPRING

발행인 오경승

발행일 2022년 3월

편집인 옥철호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장기려로) 262
T. 051-990-3700~2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Kosin Spirit

04 자기 알기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06 포스트휴먼 시대의 행복 김부경 교수·내분비내과

Medical Essay

08 백내장 수술 전에 챙겨요, 안내염 이상준 교수·안과

11 유방암, 재발과 뇌 전이 예방이 절실 김구상 교수·유방외과

14 급성충수염, 제때 치료 않으면 생명 위협 서경원 교수·위장관외과

16 정형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우리 몸의 신비 - 오스굿씨병2
최 영 교수·정형외과

Culture & Life

18 오늘, 사랑하며 사는 방법 이재범

20 일장춘몽이라도 좋다...언양 배내봉 간월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24 꽃등 김희자·수필가

27 봄을 위하여 천상병·시인

Kosin Inside

28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30 가야할 길을 잘 나아갑시다

32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불드심이로다 김민지

34 칭찬합니다

36 원목실 추천도서

37 포커스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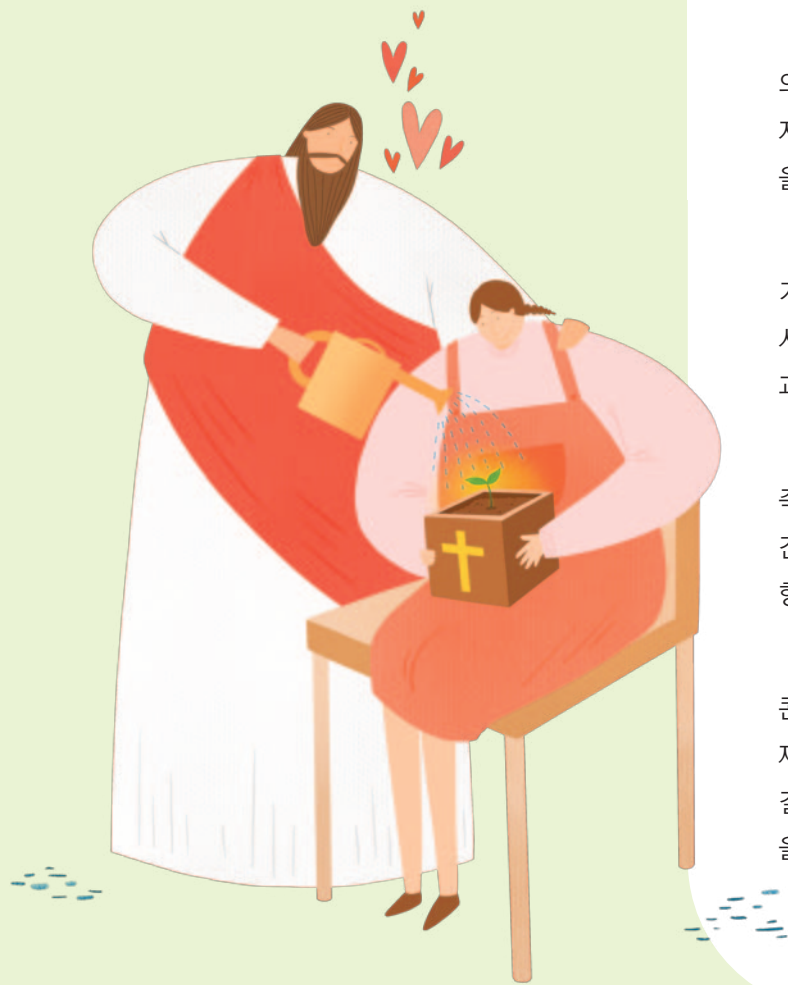
Donation

42 진료시간표

46 KOSin 사랑in

자기 알기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종교개혁가인 칼뱅의 ‘기독교 강요’의 첫 대목이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자기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의 대한 지식이 없다)이고, 두 번째가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입니다.

자기에 대한 지식은 혼자서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울로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가 더 나은 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포장되고 상향된 나를 주장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실력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명의 예술가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뛰어난 예술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격렬한 증오와 편집증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상대는 젊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시기는 탐욕과 자기 중심에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 가진 특권을 다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시기는 남의 즐거움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는 행복을 파괴합니다. 이웃이 불행으로 죽음에 이를 때 시기도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래 인간이 가진 성향입니다. 인간 실존은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사망, 그 자체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칼뱅이 말한 자기 알기가 무엇일까요? 스탈린 시절 보리스 콘펠트(Boris Kornfeld)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암에 걸린 젊은이를 불법으로 수술해 주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법을 어겨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 전날, 이 의사는 수술해 준 젊은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형 전에 후회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보리스 콘펠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리스 콘펠트에 의해 새 생명을 가진 그 젊은이는 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보리스 콘펠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의 가치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함을 증거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성을 초월한 모습입니다.

칼뱅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안 후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바른 모습, 즉 사망과 죽음 그 자체인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전무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발견된 나를 경험한 후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자기 행복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떠난 행복과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시련과 좌절이 오고 절망과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어거스틴은 “주님을 내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결과물을 통해 찾으려고 애쓰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업적, 성과, 결과를 은혜로 연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와 업적 중심의

사고로 성공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는 방법은 외적 결과를 초월하고, 나를 덜 생각하고, 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겸손을 통해서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새 생명으로서의 나를 발견하고 작은 예수로 나의 나 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 즉 작은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병원의 목적이 이익 창출이 아니라 전인을 치료하고 국민의 행복에 기여함을 알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수 많은 실험을 통해서, 간 절제술을 개척하고, 치료불가능한 환자의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옛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자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복음병원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관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돌보는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을 창조하기 위해 헬스클러스트 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복음병원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병원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온 열방에게 미치기까지 중단 없는 전진으로 자기 알기를 실천할 것입니다. ✞

포스트휴먼 시대의 행복



김부경 교수 · 내분비내과

2020년에 이어 지난해 키워드 역시 코로나19였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른바 정보와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예측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 시대를 통한 혁신적 도약을 이룬 또 하나의 분야는 바로 바이오산업이다.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던 백신개발은 실시간 정보공유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통해 2년 이내로 짧아졌다.

이러한 바이오기술의 변화는 앞으로 그동안 윤리적 문제로 시도되지 못했던 수많은 생명공학기술이 실제로 시도되기 시작할 것임을 직감하게 한다. 그야말로 포스트휴먼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포스트휴먼이란 철학자에게서 유래된 용어로,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철학 사조에서 기인한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인간 그 너머의 인간' 개념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조작을 통해 더는 늙지 않는 인간이라든가, 뇌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포스트휴먼에 해당하는 인간을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늙지 않는 인간은 인간일까? 죽지 않는 인간은 인간일까?

결국 인류가 가장 극복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바로 인간을 인간이라 규명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는 역설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노화 질병 죽음 고통 같은 것이다. 로봇은 결코 겪을 수 없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들이야말로 인간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은 질병과 죽음,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된다.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이 고통을 마주하는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재미와는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의 돈 많은 노인은 죽음을 앞두고 재미를 추구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미였다.

과연 그 노인의 죽음은 행복했을까? 게임을 하며 너무 재미있어 해맑게 웃었던 그 얼굴로 죽었을까? 재미는 찰나의 쾌락이기에 쾌락중추의 자극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온종일 오락을 실컷한 날, 드라마를 실컷 본 날, 분명 너무 재미있었는데 공허함이 몰려오는 기분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미가 아닌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행복은 영혼부터 짙 차오르는 충만감이다. 수험생이 최선을 다해 공부한 날, 의사가 사투를 벌여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날, 우리는 그런 날 힘들지만 행복을 느낀다.

재미는 행복 속에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 될 수는 있지만, 행복을 위한 어떠한 조건도 아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 어떤 이의 죽음은 그 가족들의 깊은 슬픔을 통하여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지를 짐작하게 하기도 한다.

때로 우리는 돈이 없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래서 많은 행복을 돈이 생기면으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과연 '오징어게임' 속 주인공은 돈이 없어 행복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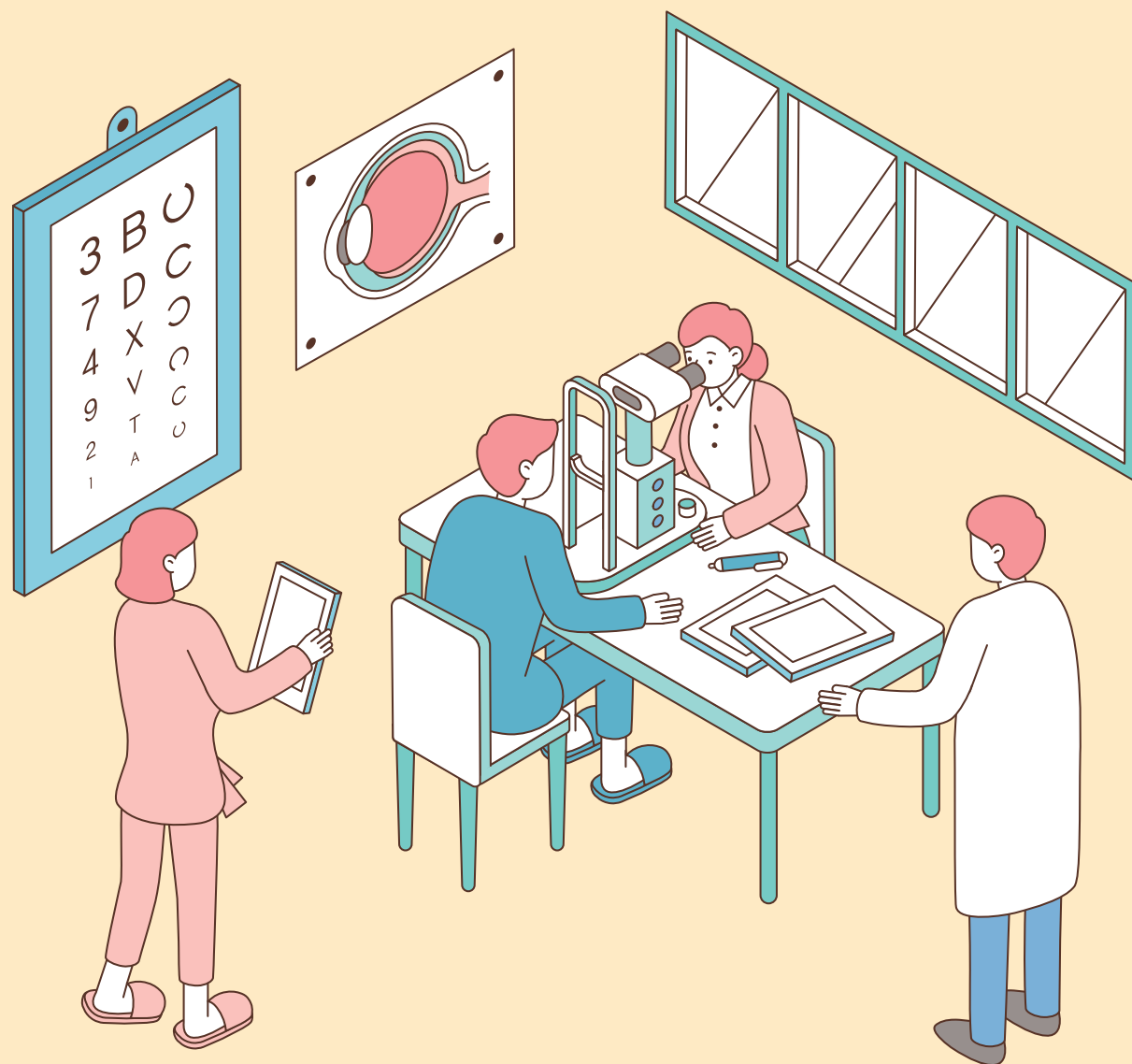
그렇다면 456억 원을 가진 후에 그는 행복했어야 한다. 만약 딸의 생일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예쁜 선물을 샀다면, 남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따뜻한 장갑을 사드렸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더 거슬러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의 부인과 딸을 잃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부인과 딸은 힘든 삶을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돈이 넉넉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많을지언정,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이 돈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고통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며, 고통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며, 그 인간다움은 결코 돈이 가져다 줄 수 없다. 새해에는 순간순간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

백내장 수술 전에 챙겨요, 안내염

 이상준 교수 · 안과



50대 남자인 이씨는 최근 핸드폰 글자가 잘 안보여 동네 안과를 찾았다. 시력은 좌우안 모두 1.0으로 측정되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노안,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멀리 보는 것은 이상이 없었지만, 가까이 보는 것이 불편하여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술 후 첫날에는 잘 보이고 불편함이 없었다. 그런데 수술 후 삼일째부터 시야가 약간 흐려지면서 충혈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주 동안 염증약을 투여해도 마찬가지로여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씨는 정밀검사에서 “곰팡이 안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안내 주사를 50여회, 수술을 2차례 시행하고 겨우 안내염이 진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염증이 심해서 인공수정체를 제거한 상태라 인공수정체를 눈 안에 재삽입하는 수술을 해야한다.



안내염이 뭐죠?

미생물, 즉 세균 혹은 진균이 수술한 눈 속으로 침입을 하면 안내염이 발생한다. 눈 속은 세균과 진균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장소이다.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고, 면역세포들이 없기 때문이다. 눈 속에서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면 시력저하, 충혈,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는 신속하게 눈 속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실명을 막을 수 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안내염은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나요?

오천 명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두 명이 안내염이 발생한다. 약 0.04%이니 흔하지는 않은 편이다. 2020년 우리나라 백내장 수술 건수가 702,621 건이므로, 우리나라 안내염환자는 약 280명정도가 2020년에 발생한 셈이다. 어렵잖아, 한해에 약 300명이 백내장 수술 후에 안내염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 흔하지 않지만, 백내장 수술 후에 안내염이 발생하게 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 최근 보도에도, 의료 분쟁 건수로 많은 것이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한 안내염이라고 한다. 만일 백내장 수술을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챙겨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백내장 수술 후에 안내염이 잘 발생할까?

먼저, 고령일수록 잘 발생한다. 나이가 80세 이상의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다. 가령, 간질환, 당뇨 등으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과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수술 후 더욱 철저히 관찰해야 한다.





백내장 수술 후에 안내염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단 백내장 수술 후에 안내염으로 진단되고, 원인이 미생물일 가능성이 높다면 신속한 수술이 원칙이다. 즉시, 눈 속에 있는 농과 미생물을 제거하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항생제를 눈 속에 주사하면 대부분 시력이 회복한다.

그러나, 치료가 늦어지면 미생물이 더 증식하면서 눈의 신경을 파괴하고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술하면서 눈 속에 있는 체액으로 미생물 배양검사를 하는데, 이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 어떤 종류의 미생물인가에 따라 시력의 예후가 다르고, 미생물에 따라 어떤 항생제를 사용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치료 후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신속한 치료를 하더라도 독성이 심한 균이 원인이었다면 망막 신경이 위축되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불행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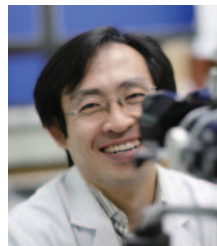


백내장 수술 후에 안내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백내장 수술은 간단해서 부담이 적다. 그러나, 수술은 수술이라 수술 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신질환이 있다면 수술 전에 혈압 혹은 당뇨 같은 수치를 정상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잘 보이지만, 약 2주 정도는 기다려야 수술한 부위의 창상이 회복할 수 있다. 창상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빈거나, 눈이 외부에 충격을 받게 되면 수술했던 창상이 열려서 외부의 미생물이 침입할 수 있다.

음주와 흡연도 완전히 회복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세수, 샤워, 혹은 사우나를 수술 후 약 1~2주간은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 후에 잘 보이던 시력이 떨어지면 통증과 발적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수술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준 교수 | 안과

전문진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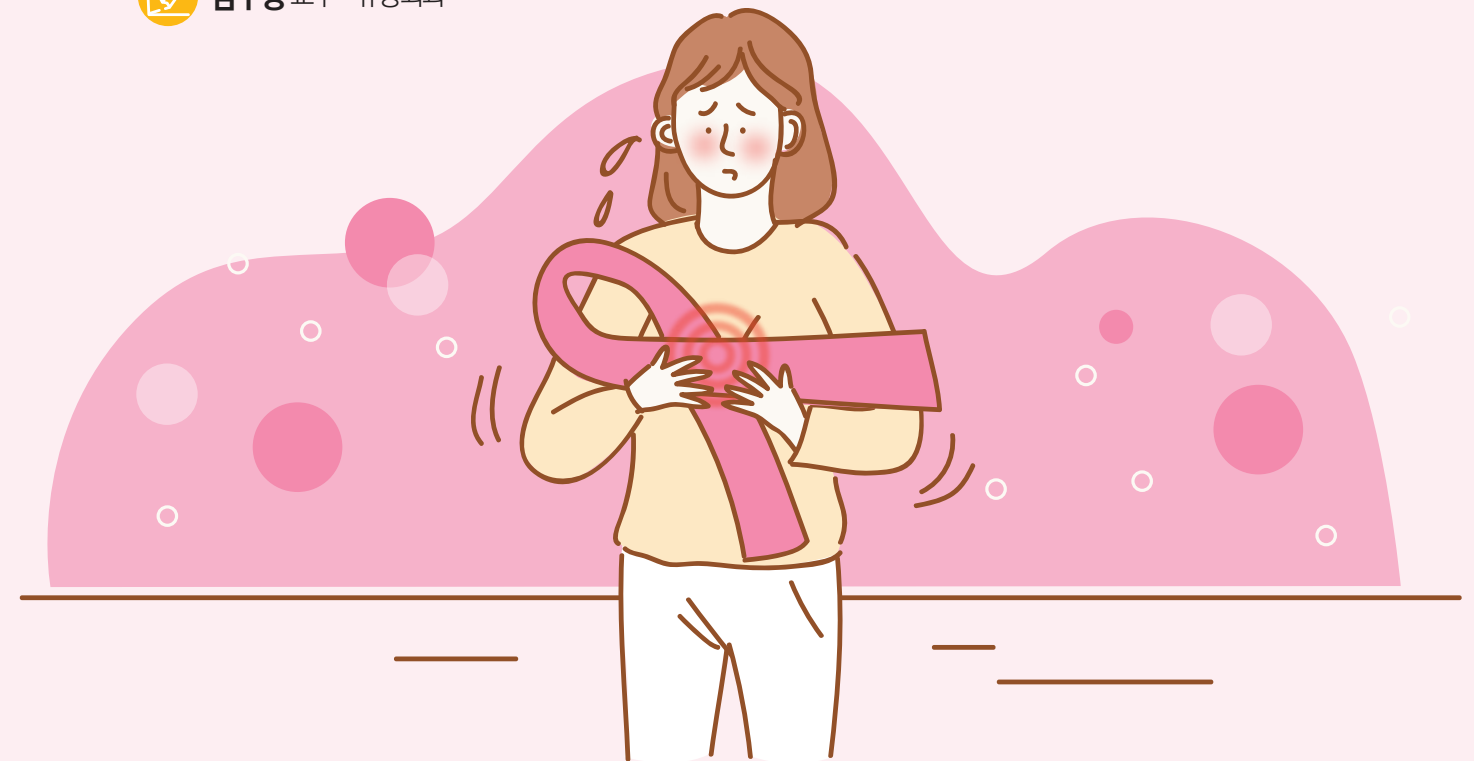
망막 / 포도막 / 백내장 / 안외상 / 눈물길 / 유리체망막클리닉 / 포도막염클리닉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전세계 발병율 1위 유방암, 재발과 뇌 전이 예방이 절실



김구상 교수 · 유방외과



여성 유방암이 암통계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지 20여년 만에 전 세계 환자 수 1위 폐암을 제쳤다. 폐암 진단을 받은 남녀 환자 수보다 대부분이 여성인 유방암 발병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암 환자 수는 1,930만명, 이 가운데 유방암과 폐암 환자수는 각각 11.7%와 11.4%로 집계되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흔히 발병하는 암 중 하나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유방검진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조기진단비율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졌으며 치료성적도 이미 세계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에 따르면 한국 유방암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치료법에 힘입어 연령표준화사망률은 10만명당 6.0명으로 선진국을 포함한 조사국가 중 가장 낮은 1위를 차지했다.

조기유방암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진데는 유방암 치료약물의 혁신적인 개발도 한 몫을 했는데, 지난 10년간 새롭게 개발되어 치료에 쓰이고 있는 신약물의 종류만 해도 그전까지 쓰였던 종류를 이미 넘어서고 있으니 엄청난 발전속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생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기 유방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약 40%는 여전히 재발 및 뇌를 포함한 타 장기로의 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나 뇌 전이의 경우 환자의 사망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예방 요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방암은 주로 뼈, 간, 뇌, 폐, 림프절, 늑막 등에 전이되는데, 특히 뇌 전이는 폐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으키는 암으로 알려져 있다. 뇌 전이는 전이성 유방암의 약 30~55%에서 발생하고 일단 전이가 시작되면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사선치료와 수술치료에도 불구하고 평균 생존기간은 약 5~13개월 사이 짧은 편이다.

유방암은 호르몬수용체와 HER2 유전자 발현에 따라 일반적으로 타입을 나누게 되고 거기에 맞는 맞춤치료를 진행하는데, 특히나 HER2 양성 유방암은 음성에 비해 뇌 전이 발생위험이 약 2배 높고, 림프절 양성 또는 2cm를 초과하는 중앙병변 환자에서 약 4배나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방암 치료 후 추적검사시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마비 증상이 있다면 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뇌 전이가 생길 경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치료에도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이렇듯 유방암 뇌 전이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앞선 언급한 두통 외에도 불안정한 보행,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증상, 언어장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관련 증상이 있을 때에 주치의와 적극적으로 상의하는게 중요하며 이보다는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는게 중요하다.

10여년전 HER2 양성 유방암에 대한 표적치료제로서 Trastuzumab (삼페넛, 허쥬마, 허셉틴 등)이란 약물이 표준치료가 되면서 HER2 양성 유방암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후가 나쁜 종류의 유방암으로 분류되었으나 표적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다른 타입의 유방암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적용이 늦어지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는 의료보험적용도 되고 모든 HER2 양성 유방암환자가 Trastuzumab 치료를 1년간 받고 있으며, 이후에 순차적으로 개발된 Pertuzumab (퍼제타), TDM-1(캐싸일라) 같은 약물이 현재에는 선행항암, 보조항암과 고식적 항암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재발과 전이를 줄이는 표준치료가 되었으니 괄목할 만

한 치료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Pertuzumab와 Trastuzumab 이라는 두 가지 표적치료제와 항암제를 동시에 투약하는 TCPH 요법은 완전관해율(항암치료후 암이 없어짐)이 60%를 넘게 되니 이제 유방암을 진단받으면 바로 수술하는게 아니라 어떤 유방암타입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방침을 세우는게 표준이 되었다.

이런 노력으로 HER2 양성 유방암의 치료에도 발전이 이루어져 전신전이와 재발을 감소로 이어졌지만, 뇌 전이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기인한다. 우리의 뇌는 외부 이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뇌기능에 필수적인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뇌혈관장벽(BBB, Blood-brain barrier)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뇌혈관장벽의 기능이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여러 약물들이 조기 유방암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적치료제인데 뇌혈관장벽을 통과하기에는 큰 분자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의 접근에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뇌 전이가 있는 경우 기존의 여러 항암제와 함께 Lapatinib (타이커브)이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2020년 SABCS(샌안토니오 유방암학회)에서는 Neratinib (너링스, 네라티닙)가 Trastuzumab 치료를 1년간 받은 환자에서 추가로 1년 투약할 경우 8년 생존율이 91%정도로 대조군대비 9%의 우위를 보이고 뇌 전이도 76%나 그 위험률을 감소시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 2021년 국내 식약처의 허가가 승인되어 이제 국내의 유방암환자에게도 치료의 길이 열렸으나, 가장 흔한 부작용인 설사를 조절하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은 차지하더라도 높은 약가와 호르몬수용체양성 환자에게만 적응증을 두고 있는 점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 외에도 새로운 후보약물들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유방암에 있어서는 10여년전 Trastuzumab 이 표준치료가 되고 의료보험적용을 받으면서 많은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였다면 앞으로도 뇌 전이를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약물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며 좋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빠른 적용이 절실하다.✚



김광상 교수 | 유방외과
전문진료분야
유전성유방암 클리닉·유방암경험자 클리닉 / 유전성 유방암 / 유방암 / 유방양성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클리닉		외래		
오후	외래		클리닉	외래	

급성충수염, 제때 치료 않으면 생명 위협

 서경원 교수 · 위장관외과

급성 충수염은 젊은층에서 빈발한다. 보통 맹장염이라 불리지만, 의학적으로는 급성 충수염이 정확한 명칭이다. 이 질환은 소장·대장과 인접한 맹장에 붙어 있는 작은 주머니인 충수(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내 진료 환자 수는 연간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이 최근 복통으로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관심을 모았다.

Q. 흔히 소화기질환으로 오인하기 쉽는데, 그 이유와 주요 증상은.

▶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초기에는 구역질이나 구토, 상복부 통증, 메스꺼움, 설사, 변비, 체한 느낌, 소화 불량,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염같은 소화기질환으로 잘못 여길 가능성도 많다.

Q. 일반적으로 젊은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 급성 충수염은 충수의 구멍이 막혀서 일어난다. 그것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충수돌기 주위에 임파선 조직이 과다 증식하면서 충수를 막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경우 임파선 조직의 증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발병빈도와 관련이 있다. 그 외 딱딱한 변이 충수로 흘러들어 입구를 막는 원인도 있다.

Q. 방지할 경우 자칫 복막염 같은 합병증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 단순 위장질환으로 잘못 알고 방심하면 염증이 복막염으로 이어지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복막염 때문에 배 안에 대변이 노출돼 심각한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은 수술기법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악화돼 목숨을 잃은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Q. 증상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 가끔씩 충수돌기 위치에 따라 통증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했다가 충수염이 악화되고 복막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충수염을 일으키는 위치의 신경이 소화기능에 영향을 일으키는 신경과 겹치기 때문이다.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 통증이 상복부에서 배꼽을 지나 우측 하복부로 옮겨가고, 미열이나 한기 등을 느끼게 된다. 치료가 늦어지면 충수가 터져버릴 수 있다.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세균과 장의 내용물이 복강으로 새면서 복막염이 유발된다.

Q. 진단은 주로 어떻게 하는가.

▶ 숙련된 외과의사가 증상을 살핀 후 복부 진찰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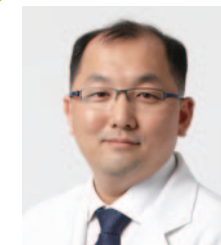
다. 우측 하복부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눌렀던 손을 뗄 때 통증(반사통)을 느끼면 급성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다. 또 백혈구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그 수치가 높으면 염증이 동반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

Q. 급성 충수염에 대한 치료방법은.

▶ 염증을 그대로 두면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진단 즉시 수술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에는 개복 수술보다 배에 구멍을 뚫은 뒤 카메라와 도구를 넣고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이 대부분이다.

Q. 일반적으로 맹장염 수술이라고 하면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데 어떤가.

▶ 요즘은 진단 기술이나 수술기법이 발달해 있어 초기에 발견 수술하면 보통 3, 4일 이내 퇴원할 만큼 경과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증상을 방치했다가 염증이 많이 진행되면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 증상을 잘 파악하고 급성 충수염으로 의심이 되는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서경원 교수 | 위장관외과
전문진료분야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식도역류질환) / 비만대사수술 / 탈장수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현직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오스굿씨 병 2편

글/그림 | 최영 교수 · 정형외과

무릎 아래 뼈가 튀어나와 아픈 질환을
오스굿씨 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오스굿씨 병의
관리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스굿씨 병 **관리 및 치료법**

대개 청소년의 경우 축구, 농구 등의
운동 후에 증상을 호소합니다.

통증이 있을 경우 운동을 쉬게 하고,
얼을 찜질, 소염제 투여 등으로 대개 충분합니다.

소염 진통제 **휴식** **얼을 찜질**

이 질환은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현상을 반복하므로,

통증이 없어지면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다시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성장판이 닫힌 후에는 임상적으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장판 OPEN **성장판 Close**

많은 부모님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로 알아두실 것은

걱정 **걱정**

오스굿씨 병은 성장과는
아무 상관 없는 사실입니다

키와 무관

일부에서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은 튀어나온 뼈 부위나
조각을 없애주는 것이지만

튀어나온 곳 **잘라내기**

성장기 아동에서 수술이 비수술적 치료에 비하여
결과가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

대부분 증세가 호전되며 오스굿씨 병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오스굿씨 병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여
발생시키는 원인을 피하고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관리법입니다.

지금까지 2편에 걸친
오스굿씨 병이었습니다.

OS Good~



최영 교수 | 정형외과
전문진료분야
소아정형외과 / 슬관절 / 족관절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오늘, 사랑하며 사는 방법

이재범

성인이 된 후 예수님을 만난 나는 국내외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하
는 기독교 국제구호개발기구에서 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서 기
독교에 근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
던 때 초등학교 축구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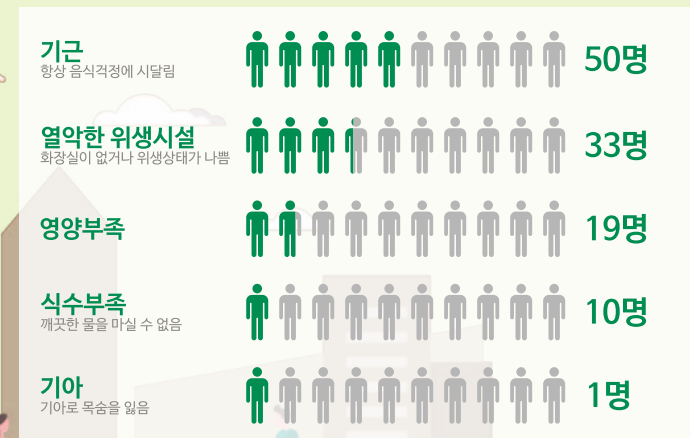
나의 첫 번째 사랑은 '풍성한 지원'이었다. 많은 지원금을 후원받아
어느 아마추어 축구선수단 부럽지 않을 자원을 제공하고 축구 실력
을 높일 코치도 선임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나 낮은 출석률과 만족도
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때, 나의 두 번째 사랑은 '자유'였다. 꼭 지켜야 할 규율 외에는 포
지션도, 전술도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
결과 높은 출석률과 만족도를 넘어 경기 승리의 성과를 만들어낸 아
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다. 빈곤의 문제 또한 일
반적으로 자원과 정책의 확장을 통한 '해결'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이
보편적이다.

2022년 사회복지예산은 정부 재정의 32%를 구성하는 195조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존재하고 있다. 과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과
정책으로 빈곤의 종식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논리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 인구 78억명이
100명이 사는 마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빈곤 통계
를 나타낸다.



| 출처 | 세계시민수업 빈곤

혹시, 위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듣거나 본 적 있
는가?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아픔이 많
은 가정, 뿌연 흙탕물을 마시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뉴스, 방송, 광고를 활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기
금모금을 '빈곤 포르노'라 지칭하며 기부 문화에 대
한 불신을 조장하고 나눔에 뜻이 있는 사람들의 손
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한 국제구호개
발기구의 현황을 빚대어 기부의 순기능에 대해 간
단히 설명하자면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1.1%
인 60만명이 후원을 결심하면 1년간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의 아동과 보호자, 국내 2만명 이상의 아동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단순히 국제개발 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덕분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을까? 아니다. 답은 아
주 간단하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이웃을 향한 '사
랑', 그리고 '관심'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듯 도둑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쳤던 유대인과 달리 아픈 사
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멸시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이었다. 뿐만 아니
라 과부, 병자, 죄인들을 친히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본인이 성경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
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누군가를 돕는 선한 일을 전적 비교 하듯 너무 계
산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상황
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TV에서 본 어려운 가정
이 가엾게 여겨질 때, 기부의 기회가 생겼을 때, 사

랑의 마음을 실천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2년이 넘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의료의 현장
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빈
곤을 해결을 위한 관점의 변화와 같이, 의료 현장
에서도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전 국
민이 함께 울고 웃으며 따뜻한 마음을 한 가득 품
을 수 있었다. 드라마이기에 표현할 수 있는 병원
의 따스함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아마도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 담
긴 의료진들의 모습이 표현되었기에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은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
음으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런 면
에서 장기려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병원의
사랑의 역사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
까 생각한다.

끝으로 내가 근무하는 단체의 비전선언문을 소
개하며 마치고자 한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
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
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마리아인들이 부어주는 넘치는 사
랑으로 인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사랑이 끊이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길, 사랑의 범주가 넓
어져서 세계시민의 마음으로 전 세계에 지속가능
한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많아지길 오늘도 기도
한다.✝



일장춘몽이라도 좋다 언양 배내봉 간월산

 노경만 산 · 여행작가



우연히 지나가다 바라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뛰는 산이 몇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영남알프스다. 산 아래 언양에서 바라보면 배내봉에서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으로 이어지는 장쾌한 영남알프스의 능선은 따뜻한 봄날이 봄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커다란 언덕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더욱 뜨겁게 가슴이 뛰는 다.

배내봉은 해발 966m로 영남알프스의 심장으로 불린다. 1,000m가 넘는 가 지산 간월산 신불산 등의 명산들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봉우리로, 옛 사람들은 여기로 오르는 길을 <하늘길>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아마도 <역새하늘길>이라는 이름도 이 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높이 1,069m의 간월산은 옛날 이 산기슭에 간월사라는 사찰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공룡의 등뼈를 닮았다는 간월공룡능선이 있고, 바로 아래에는 백패커의 성지로 잘 알려진 역새평원 간월재를 품고 있다.

사연많은길

배내고개에서 배내봉을 지나 간월산에 이르는 길은 옛사람들의 삶과 연관된 많은 사연과 애환을 품고 있다.

일명 <장구만디>라 불렸던 배내고개는 기러기처럼 떠도는 장꾼들이 모이는 고개였다고 한다. 배내봉으로 잠시 오르다보면 <오두메기>라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정표에는 밀양과 원동에서 물목을 거두어들이던 장꾼과 보부상과 소장수들이 큰 장이 서는 언양으로 가던 통로로 영남알프스의 우마고도였다고 적혀있다.

배내봉에서 능선을 따라가다가 간월산 오르기 직전에는 <선집이질등>이라는, 일명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라는 곳이 나온다. 일흔아홉 고개를 오르다 너무 힘들어 등짐을 진 채로 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선집이질등.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산짐승이 울어대는 첫 새벽녘 호롱불을 든 배내골 아낙들이 등짐을 지고 올랐다고 한다.

배내봉에 오르면 영남알프스의 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000m가 넘는 여러 준봉들의 길이 연결된다. 옛사람들은 이곳에 오르는 길을 <하늘길>이라 불렀단다. 그만큼 조망도 뛰어나 영남알프스의 거의 모든 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파른 벼랑 중에 그 높이가 천길이나 된다는 천절바위. 협곡을 건너뛰는 표범이 살았다는 범골. 들어가는 사람은 보아도 나오는 사람은 못 보았다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저승골 등을 품에 안고 있다. 저승골에서 시작된 물은 흘러 산 아래 작천정으로 이어간다.

옛 이야기에는 화살을 쏘아 천 개의 달 중에서 한 개의 달을 맞춰 그것을 물그릇에 담아마시기도 했다고 전하는 길. 배내고개에서 간월재에 이르는 이 길을 지금은 하늘역새길 중 <달오름길>이라 부른다.

한바탕의 봄꿈 - 배내봉에는 분홍색 솜사탕 같은 철쭉의 향연이 펼쳐진다.

배내고개에서 배내봉까지는 1.4km의 가파른 오름길이다. 오두산재로 갈라지는 갈림길인 오두메기를 지나면 나무계단으로 된 오르막길을 약 1시간여정도 계속 올라야 한다.

오름길 중간쯤 심한 갈수기에도 쉬 마르지 않는 <아람약수>가 있다. 목을 축이고, 더러 돌아서서 능동산 너머 가지산과 상운산으로 이어지는 풍경을 보아가며 쉬엄쉬엄 걷기를 추천한다.

아직도 쌀쌀한 2월의 날씨가 무색하게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다. 더욱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 사이를 비집고 한줄기 바람이 불어오는 즈음, 흔들리는 역새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잠시 후 마침내 능선에 도착한다.

능선 너머에는 아찔한 벼랑 아래로 저승골과 등억온천단지와 언양 시내의 풍경과, 그 너머 동해바다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지척에 배내봉 정상 모습도 보인다. 탁 트인 사방으로 고현산에서 문복산 상운산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재약산 간월산까지 영남알프스의 거의 모든 봉우리들이 조망된다. 배내봉은 과연 영남알프스의 심장이라 불릴 만하다.

멀지 않아 봄이 완연해지면 부근은 부풀어 오른 분홍색



의 솜사탕 같은 철쭉이 뭉게뭉게 피어난다. 그러면 파릇하게 돌아나는 역새풀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스르륵 찾아오는 졸음에 겨워 한바탕 달콤한 봄꿈이라도 꾸고 싶어지는 배내봉. 더없이 시원하며, 참으로 나른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다. 어찌면 따스한 봄 햇살이 다정하게 팔배개를 해줄지도 모를 일이다.

마치 심장에서 이어진 혈관들처럼 북쪽으로 오두산, 동쪽으로 밝일산, 그리고 남쪽으로 간월산으로 갈라지는 곳이 배내봉이다. 하늘역새길 중 달오름길은 간월산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길은 울퉁불퉁 자주 돌부리에 발이 채이기도 하고 더러 커다란 바위를 넘어야 하기도 한다. 터널을 이룬 숲속 길을 걷다가 문득 지루해지면 아찔한 벼랑 위 전망대에 서서 풍경을 즐길 수도 있다. 선잠이질등에 도착할 때까지 고도차가 그리 높지 않은 오르내림이 반복된다. 넉넉히 1시간여는 잡고 걷는 것이 좋다.

선잠이질등에서 간월산까지는 다시 가파른 오름길이다. 길이 좋지 않아 자칫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조심 올라야 한다. 약 30여분정도면 간월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간월산 정상석은 뾰족한 바위 위에 서 있다.

건너편으로 신불산이 가까이 보이고, 그 아래 역새밭이 드넓은 간월재가 어떤 그림책에서 본 목장의 풍경처럼 펼쳐져 있다. 아스라이 떨어진 배내봉을 뒤로 하고 간월재로 내려와 산행을 마무리 한다.

그즈음이면 봄날의 햇살도 간월재를 넘어 붉게 떨어질 것이다. 예로부터 현양팔경의 하나로 손꼽을 만치 아름답다는 간월낙조. 하루 봄날의 달콤한 일장춘몽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다.

내려가는 길은 보통 임도를 타고 지금은 복합웰컴센터라고 하는 간월산장 방향을 선택한다. 반대쪽 임도를 따라 신불산자연휴양림으로 내려가거나, 간월산을 휘감고 돌아가는 긴 임도를 걸어 다시 배내고개 방향으로 원점회귀를 할 수도 있다.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면 신불산을 올라 신불재와 영축산으로 산행을 이어가도 좋다. 



찾아가는 길

언양에서 배내고개로 가려면 구언양터미널 정류장에서 328번 버스를 타면 된다. 하지만 버스가 자주 있지는 않으니 미리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택시를 타면 16,000원 정도 요금이 나온다.

복합웰컴센터로 하산하였다면 323번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오면 된다. 버스는 하루에 9회 정도 운행한다. 택시를 타면 7~8,000원 정도 요금이 나온다.

꽃등

 김희자 수필가



눈 닿는 가지마다 황홀경이다. 며칠째 나무는 분홍색으로 부풀고 있다. 나는 이곳에 올 때마다 달콤한 흥분에 사로잡힌다. 아득한 시간의 경계를 지우고 모교 뜰에 살구나무 한 그루 서서 꽃등을 밝히고 있다.

꽃이 피기 전에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부푼 꽃송이가 환하게 봄을 지피자 실체를 알았다.

친정에 말없이 다니러 오는 새댁처럼 소리 없이 피어난 살구꽃. 은은한 광채를 내는 환한 꽃등이 봄 색을 자아내고 있다. 꽃등이 하도 밝아 담장 밖까지 환하다. 밤에도 등을 밝히며 불 꺼진 학교를 지킨다.

아이들이 떠난 학교에서 오래된 기억 다 내려놓고 존재를 드러낸다. 몸속에 숨어있던 수만 송이의 꽃이 봉오리를 터트리며 봄을 밝힌다. '홀로 있을 때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말하는 듯 발광하고 있다.

봄이 되니 폐교에도 꽃, 나비가 오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한때 청춘을 간직했던 폐사지 마냥 학생들이 떠난 학교도 폐교가 되었다. 가르침의 존재를 망각한 학교에 꽃등 밝히고 선 살구나무가 저토록 봄을 군림할 줄이야. 아무리 미약한 것도 주목을 받는 순간엔 하나의 아름다운 우주가 된다는 사실을 이 봄에 느낀다.

날로 환해지는 꽃등을 보기 위해 나는 매일 모교로 왔다. 학교로 오는 길엔 오래전처럼 바닷바람이 언덕을 타고 올라와 꽃등을 간질였다. 느리게 펼쳐지는 풍경에 도취하여 고향의 봄을 즐긴다. 내 손을 잡았던 누군가의 손처럼 고향의 봄은 따스하다.

폐허가 된 교장 선생님의 사택 마당에 쓸쓸하게 서서 학교를 지키는 나무. 겨우내 매운 해풍에도 묵묵히 서 있다가 봄이 되자 자신의 존재를 맘껏 드러낸다. 고통을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처럼, 움직이지 않는 포승에 묶인 듯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다.

세월과 함께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미와 깊은 진리가 머문다. 부드럽게 애무하는 봄별을 쫓으며 그 환한 색에 물들어보지 못한 나는 멍하니 서서 환한 나무만 올려다본다.

지난가를 단풍이 너무 고와 무슨 나무인가 궁금했었다.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가을 색을 질게 내던 나무였다. 저문 가을날, 그 곱던 단풍은 산이 무너지듯 떨어졌다. 겨우내 빈 가지 사이로 쪽빛 하늘이 쏟아져 내렸다.

미세먼지로 뿌영던 하늘도 봄비가 내리자 맑아졌다. 연분홍 꽃가지와 파란 하늘... 쪽빛 하늘 아래서 저런 꽃을 피우려면 하늘과 소통하고 땅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 저토록 고운 색을 내는 나무도 있는데 나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나뭇가지 사이로 멧새 한 마리 날아와 노닐듯 나는 꽃그늘 아래서 마냥 봄을 즐긴다. 적막한 겨우내 머물던 우울함 털어내고 뽕얀 봄 길 걸어 잊힌 추억을 더듬는다.

내 안에 아직도 추억이 남아 있음에 감사하고 옛 기억을 더듬을 수 있음이 놀랍다. 소학교에 다닐 때 넓고 반듯한 이 운동장에서 고무줄놀이나 줄넘기를 하며 뛰놀았다.

홀로 빈 운동장에 앉아 있는 이런 날엔 고향 친구들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손가락에 분홍 꽃물을 들여 옛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움이라는 말보다 더 그림다는 말이 있다면 나는 그 말을 지금 쓰고 싶다.

세월을 흐르는 구름이라 할까. 흔적 없는 바람이라 할까. 기억은 노을처럼 아득하게 몸을 풀어헤친다. 구름언덕의 구절초처럼 칠산 팔 해를 떠돌다가 먼 길 돌아 다시 고향 집으로 왔다.

어떤 감정은 시간과 정성에 의해 느릿느릿 키워진다고 하더니 고립이 완고해질수록 뜻밖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생각해 보면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닌데 추억은 아득한 옛이야기인 듯 가물댄다.

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후 가장 찬란한 것. 저 나무도 저렇게 환한 꽃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 기다림이 있었을 터이다.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삶의 매 순간이 투쟁일지라도 견뎌보는 것이다. 나도 저렇게 환한 꽃등 밝힐 날을 기다리며 견뎌볼 참이다.

오랜 화유의 시간으로 내가 무르익으면 저 살구나무처럼 꽃등을 밝힐 수 있으리라. 꽃등 환한 봄날, '다시 시작'이라는 진부한 언어가 나를 찾으라고 부채질한다.

꿈꾸는 자의 은유는 사치가 아니다. 작가는 마음을 열고 어떤 소재를 섬세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내면의 혼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진정한 작가라 할 수 없으리라. 소재와의 인연이 성숙하지 않으면 글 또한 무르익지 않는다. 이곳은 내가 발을 딛고 선 대지이자 꿈을 키우던 곳이다.

제비꽃같이 앙증맞던 계집애가 오십 중반이 되어 지금도 꿈을 꾀다. 생의 어떤 시기이든 봄은 오기 마련이고, 그렇게 봄이 오면 다시 아름다울 수 있다. 저 살구나무처럼 꽃등을 밝힐 날이...

이젠 봄만 되면 생각날 저 환한 꽃등. 온 우주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듯 등불 밝히고 선 나무가 경이롭다. 나는 언제쯤 내 존재를 드러낼 환한 등 하나 달 수 있을까?

다른 누구로도 아닌 오직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이 떠오른다. 존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가. 깊고 고요한 꽃그늘 아래서 나는 한동안 봄을 맘껏 품으리라.

세상의 하찮은 미물도 저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폐교에 남은 살구나무는 정녕 봄의 전병. 한철 짧게 살다 가는 꽃이지만 꼭 살아남아 쓰러져 가는 배움터를 봄마다 꽃등 환히 밝히기를. 🌸

봄을 위하여

겨울만 되면
나는 언제나
봄을 기다리며 산다.
입춘도 지났으니
이젠 봄기운이 화사하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도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이 말을 잊으랴?

봄이 오면
생기가 돌아나고
기운이 찬다.

봄이여 빨리 오라.

천상병

고신's 스토리


 구유진 기자기독교보

부름에 언제나 응답하는 의사



김영식 교수 응급외과

2022년 전공의 모집 결과 외과는 정원 180 명에 108명이 지원해 지원율 6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79%에서 19%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3D(difficulty, dirty, dangerous)로 꼽히는 외과인지라, 전공 미달이 새삼스러운 것 없는 현상이지만 1년 만에 떨어져 버린 이 수치가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김영식 교수는 응급외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외과’라는 명칭이 어쩐지 친숙한 듯, 낯설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숙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누구나 알고 있는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라는 말처럼 ‘외과’ 때문일 테죠.

하지만 ‘응급외과’는 익숙하지 않기에 낯설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응급외과’는 ‘응급의학’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외과는 수술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과라고 할 수 있어요. 고신대 학교복음병원 외과에 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고난도의 암 수술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과라면 응급 수술을 피할 수 없는 과이기도 하죠. 일과 중인 낮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분도 많지만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묘하게도 일과 이후인 늦은 밤, 새벽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시행된 급성 충수염의 수술 통계를 보면 75% 이상의 수술이 일과 이후인 밤과 새벽에 시행됐습니다.”

응급외과는 아직 외과학회에서 공인된 분과는 아니지만, 서울의 대형병원을 위주로 ACS(Acute care surgery) 팀이라는 이름으로 외상(trauma)을 제외한 응급 수술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신대복음병원 응급외과에는 현재 김영식 교수를 비롯해 이철민, 정주원 교수가 24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도 아닌 3명의 교수진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예상대로 녹록하지 않았습니. 언제 수술을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수술로 주말 반납도 다반사죠.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 주말에 응급 수술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응급의료센터 선생님들, 수술실의 마취과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들, 저희 수술을 도와주시는 외과 PA 선생님들, 인턴 선생님들, 그리고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중환자실,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한결 같은 노력이 있어 가능하죠.

무엇보다 무사히 회복하고 웃으면서 퇴원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 응급외과는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부름에 오늘도 열심히 응답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즉시,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고신대복음병원 응급 외과는 존재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응급외과 수술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나고(출혈) 굵고(감염) 터지고(천공) 막히고(폐색) 썩고(허혈)입니다. 주로 하는 수술은 감염성 질환인 급성 충수염 수술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위, 소장, 대장이 천공되어 발생한 급성 복막염, 소장이나 대장이 막혀서 수술하는 장 폐색성 질환, 장의 혈관이 막히거나 피가 통하지 않아 발생 하는 허혈성 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직접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있으나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되지 않거나 의뢰를 통해 전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건 3D과로 취급을 받아 갈수록 외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줄고 있어 10년 정도 후에는 부산에서 급성 충수염 또는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환자들을 병원을 돌고 돌다가 더 악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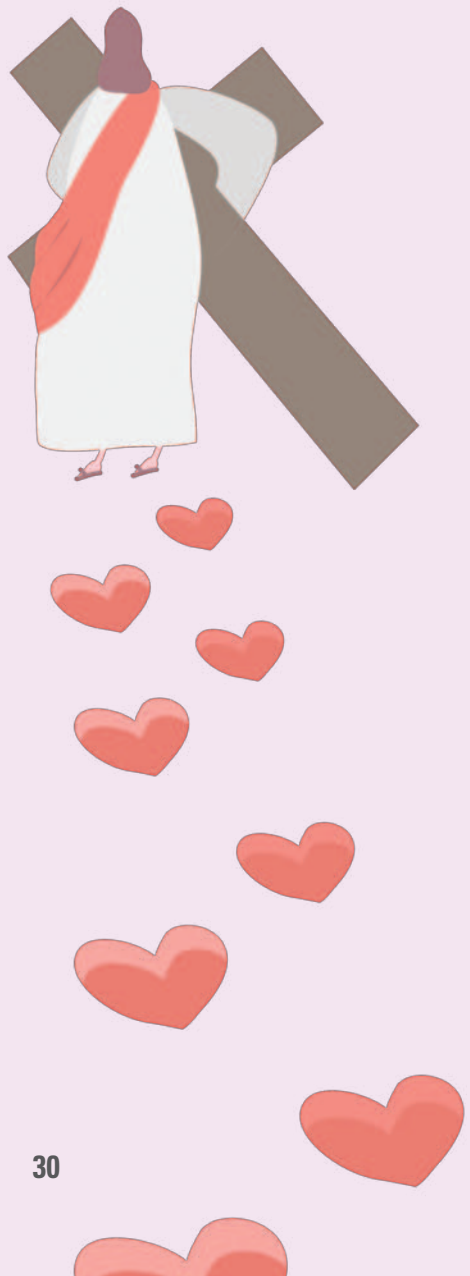
응급한 상황에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 환자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그만큼 무거운 마음도 비례할 터.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눈물을 쏟았던 일도 많았어요.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신이 아니기에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환자를 만나게 되면 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응급외과의 미래는 아무도 예견할 수는 없지만, 외과 응급 수술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응급수술을 담당하는 응급외과의 일이 아무리 3D(Difficult, dangerous, dirty)라 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일입니다.

“명예란 수술에 있어 전문가여야 함은 당연 하겠죠. 교만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꿈을 다시 심어주는(dreaming) 새로운 3D(dynamic, dramatic, dreaming) 로 바꾼다는 소망으로 내일도 복음병원의 밤을 밝히겠습니다.” 

가야할 길을 잘 나아갑시다



얼른 듣기에 좋은 말 같지만 꼭 ‘좋은 말’만은 아닌 말이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하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하기 보다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잘하려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욕심내게 되고, 잘못 될까봐 걱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끝나고 나서는 ‘잘했다’는 말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더 커서 만족을 모릅니다.

간증을 부탁하면 ‘부담스럽다’, ‘걱정 된다’, ‘어렵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잘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고 말씀 드리지만, ‘잘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여 주려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하는 것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더 안 되고, 부담되고, 조금해 집니다. 잘하려는데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하려 하지 말고 바르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바르게만 하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하게 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정도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잘하려 안하고, 바르게 하려하니 더 여유롭게 잘되는 것 같다.’는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잘하려 않고, 바르게 하는 것! 우리가 타협만 하지 않고 바르게만 하면 어떤 형태로든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할 길 멈추지 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비가와도 가야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1월만 해도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 기대감은 아쉬움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낙관할 수 없고, 또 어떤 생각지 못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도 얼마든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지난 2년의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코로나 가운데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저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명언을 붙잡았고, 이 명언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흔들림 없이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고, 교회 또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가야할 길을 갈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주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것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를 구하고, 가야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김민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의 지난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며,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계기는, 어느 한 가정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0년 겨울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고 중국 여행을 통해 만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한국인을 만나니 반가웠고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통영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은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이사를 한 곳 또한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후 저와 저희 엄마는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점차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생활에만 집중을 한 탓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

각하고 사람들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등부 3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가게 된 교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저의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졌고 고등부 때부터는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고 교회 공동체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생각하며, 바쁘게 지내며 고3이 된 어느 날 교회 청년팀 리더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밥 먹고 얘기도 나눠보지 않을까?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열아홉의 이른 시기에 첫 직장에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터라 너무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던 중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부 모임에 참여하며 다시 교회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스물이 되어서는 청년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만 지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채 한쪽으로는 교회에 마음



을 두고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 즐거움 쫓으며 살아가기 바빴고 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회색 크리스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언제든 돌아오면 된다. 믿지아' 두 팔 벌리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24)

제가 넘어지려고 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손을 붙들어주셨고 저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청년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교회를 가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 이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후 제자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제자훈련을 신청했고 큐티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은 정말 나와 내가

죽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서 1년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낯선 땅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두려움과 설레는 마음이 공존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 땅을 떠나는 저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캐나다 땅을 밟게 하였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더욱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깊이 경험하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지금의 저는 공동체 리더로 섬기고 있으며 전도국 섬김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찾으셨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저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칭찬합니다

510 병동은 입원기간동안
친정에 온 듯 편안했습니다.
덕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생각에 퇴원이
아쉽기까지 합니다.

- 장○○ 님

To. 심장내과 박아림 간호사 선생님
두려움이 컸던 첫 진료에서
자신의 일인 양 안타까워해주는
모습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 이○○ 님

To. 506병동 진자영 간호사님
남편이 암수술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밝게 간호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어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류○○ 환자 배우자님

WOCN 신금아 선생님께
가족같이 편안하게 처치해 주시고,
힘든 시기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님

늘 즐겁게 인사하며 환자에 대한
정성어린 관심 가져주시고
웃음을 주는 응대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김현민 선생님의 고된 간호사
생활을 응원합니다.

- 정○○ 님

몇 번을 질문해도 늘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517병동 간호실 선생님 덕분에
걱정없이 즐겁게 치료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김○○ 님

산부인과 이태화 교수님,
박기연 선생님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힘이 되었습니다

- 김○○ 님

517병동 간호사실 선생님!
환자들에게 너무너무 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칭찬드
려요.

- 주○○ 님

To. 알레르기내과
이지민 간호사선생님
응급상황에 빨리 대처해 주고
늘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님

간담체외과 신동훈, 문형환 교수님
그리고 박보영, 김정미 선생님께,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감사합니다.

- 한○○ 환자 보호자님

508병동 선생님들께,
밝은 병동 분위기에 힘을 얻습니다.
석여은 선생님은 환자의 작은
요구도 책임감 있게 들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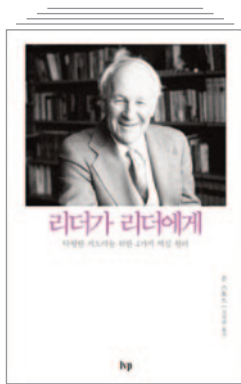
- 권○○ 님

류마티스내과 김근태 교수님은
바쁘신 가운데도 그 많은 환자분들께
항상 친절하고 미소로 대해주십니다.
많은 힘을 얻습니다.
362병동 최원석 선생님은 제가 만난
선생님 중 가장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
이세요.

- 서○○ 님

손혜진 간호사 선생님~
친절 봉사에 감명 받았습니다.
백의의 천사 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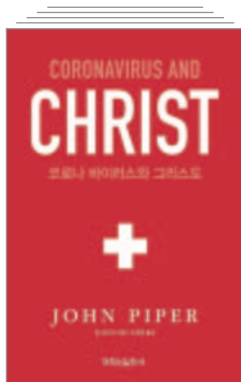
- 한○○ 보호자님



리더가 리더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위한
4가지 핵심 원리

저자 존 스토틀 | 역자 김명희 | IVP |
2016.07.25 |

원제 Problems of Christian Leadership



코로나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프 저/조계광 역 |
개혁탄신전사 | 2020.04.28.



책소개

리더들의 리더, 존 스토틀를 멘토로 만나다
“리더십의 진수! 부드럽고도 강력하게 각인되어 심장을 고동치게 한다!”
“나는 늘 스토틀의 책을 통해 또 다른 회심을 경험한다!”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재단), 마크 래버튼 총장(풀러 신학교) 외 추천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존 스토틀의 명강의!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리더 존 스토틀가 분투하며 길을 찾는 리더들에게 리더십의 핵심 원리를 전해 준다. 그는 한 번이라도 리더의 위치에 서 보았던 사람이라면 절감하는 어려움의 본질을 짚어 내며, 탁월한 성경 주해와 진솔한 경험 사례, 흥미로운 예화 등을 통해 압박감을 견뎌 내는 ‘낙심 극복’의 원리, 영적인 생기를 유지하는 ‘자기 훈련’의 원리, 사람들을 존중하는 ‘관계’의 원리,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되는 ‘권위의 원리’ 등 리더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돌파해 나갈 4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짧지만 알찬 이 책은 오늘의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 [출처: 예스24]

저자소개 | 존 스토틀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자 신학자요 저술가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1921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했다. 케임브리지 리들리 홀에서 목회 수련을 받았으며, 어릴 적부터 다녔던 영국 런던의 올 소울즈 교회(All Souls Church) 교구 목사로 30여 년 간 섬기면서 강력하고 혁신적인 목회 사역을 수행했다.

영국을 비롯한 범세계적인 복음주의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로잔 언약(1974)을 입안했고, 그 후로도 로잔 운동을 적극 주도해 왔다.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제3세계에서 광범위한 설교 사역을 감당했다. 그가 설립한 랭햄 파트너십 인터내셔널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문사교육 사역을 펴 나가고 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 칭했고, 전기 작가 존 폴락은 “사실상 전세계 복음주의의 신학적 리더”라고 했다. 2005년 “타임(Time)”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하바 있다. 구십 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온 그는 2011년 7월 27일 오후 3시 15분 런던 바나바 칼리지 은퇴자 숙소에서 지인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과 헨델의 메시아를 들으며 주님의 품에 안겼다. 대표적인 저서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정한 기독교』,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행전 강해』, 『로마서 강해』, 『디모데전서2지도서 강해』, 『디모데후서 강해』,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신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처럼』 등이 있다.

[출처: 예스24]

책소개

2020년 1월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가 보고된 이후 이 유행병은 삼시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가 몇 달만에 글로벌 팬데믹으로 치달았다. 전 세계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질병의 위험, 그로 인한 생명의 위험 아래 노출되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저자는 1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보내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선포한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자증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신자는 달콤함을 누린다. 주권자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바로 중단시키지는 않기로 결정하시더라도 그 와중에도 그분의 백성의 영혼을 지탱시켜 주신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손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언제나 자비이다. 심지어 죽음 안에서도 신자는 하나님의 달콤한 자비의 손길을 본다. 2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여섯 가지로 기술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의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때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심판을 내리신다. 질병에 대한 고난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이다.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고난은 선교의 진전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분의 모든 뜻은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선하다. [출처: 예스24]

저자소개 | 존 파이프 (John Piper, John Stephen Pipe)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 미국 처치리포트가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 미니애폴리스 베들레헴신학교 총장이며 베들레헴침례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삶을 허비하지 말라』 (이상 생명의말씀사) 등 50여 권의 저서가 있다. desiringGod.org를 설립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신앙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전수하고 있다. 아내 노엘과의 사이에 네 아들과 딸 하나, 손주 열둘을 두었다. [출처: 예스24]

Focus View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질향상 및 환자안전 학술대회 성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11월 24일 장기려기념암센터 대강당에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각 부서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전 제출된 사례 가운데 여러 과정의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5개 팀을 선정해 11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병원 중앙로비에서 포스터 전시회를 가졌고, 최종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교직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노력한 결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며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매년 QPS실 주관으로 병원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환자 만족도 향상,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리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감염, 의료 질 향상을 통해 치료와 검사 등 전 부문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2021.11.24.]

(주)하이와 스마트헬스케어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

- 약물 아닌 '햇빛'을 통한 치매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작



고신대병원은 12월 1일 오후 병원 혁신형의사과학자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하이와 스마트헬스케어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헬스 클러스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정보 교환 ▲햇빛을 통한 치매, ADHD, 우울증 등의 치료 협력▲ 전문 분야 간 기술 교류 및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신기술 개척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식회사 하이는 치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벤처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오경승 병원장은 “디지털 치료제 사업모델은 의료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과도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화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021.12.01.]

신경과 이원구 교수, 생명나눔 공로상 수상



신경과 이원구 교수가 12월 2일 고신대병원 3동 회의실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으로부터 생명나눔 공로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이원구 교수는 “송고한 생명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대가 없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다면, 앞으로도 장기기증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 공로상’은 매년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한 의료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원구 교수는 고신대병원 원내 기증 활성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뇌사추정자 발굴과 적극적인 보호자의 기증면담, 유기적인 의료진의 협업을 통해 장기기증의 송고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내 기증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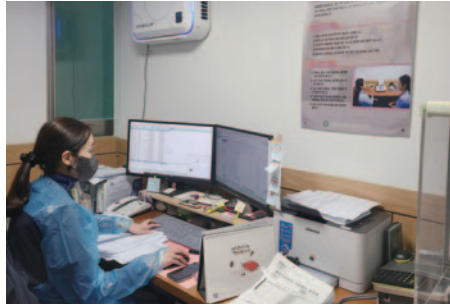
[2021.12.02.]

Focus View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최고 S등급

- 건강검진 분석능력, 판정 신뢰도, 고객만족도, 직업병 감시체계 최상 인증



고신대복음병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특수건강진단은 유기용제, 중금속, 소음, 분진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건강진단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은 2년마다 분석 능력, 시설장비 성능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전국 145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고신대병원은 건강검진의 사후관리 관련 항목과 지역 사회 산업보건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경승 병원장은 "그 동안 정확한 검진을 위해 진료뿐 아니라 산업체 검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성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9.]

한국의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26주기 추모예배 개최



성산 장기려 박사(이하 장기려 박사) 서거 26주기를 맞아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1동 3층 예배실에서 추모예배가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입장 시 QR코드를 찍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김종철 목사, 고려학원 이사회 서기 유연수 목사, 오경승 병원장, 교직원 등 30여 명 등 최소한의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철 이사장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상기시켜야 한다", "계속해서 장기려 박사의 섬김과 희생정신을 따르길 바란다"며 "섬김과 희생"을 강조했다. 고신대병원에서는 2019년부터 고신대복음병원과 성산 장기려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한 장기려 박사의 생전 자료를 통해 병원 중앙 로비와 1동 3층 복도에 장기려 박사 추모공간을 마련했으며, 병원 내원객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1.12.16.]

제 17회 내과연수강좌 온라인 개최



제17회 고신대병원 내과연수강좌가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 및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 준수하기 위해 12월 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고신대병원 내과는 매년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진료실에서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최신 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강좌는 총 3부로 나뉘 첫 번째 섹션은 개원의를 위한 약제 처방, 두 번째 섹션은 개원의를 위한 꼭 필요한 외래검사에 대해 발표하고 각 섹션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마련해 개원의를 위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연수강좌에 개회사를 맡은 옥철호 내과 주임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시대적 변화 상황에도 개원의 선생님들의 열정에 도움이 되고 연수강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의료진들의 최신지견 공유가 개원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12.21.]

Focus View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 획득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시설, 장비, 인력을 포함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 전담의료 인력의 적정성, 중증응급환자 책임 진료(수거) 등 지표 4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고신대병원은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서도 중증응급환자 치료시설과 음압격리시설 및 장비 인력을 대거 확충함으로써 시설점수에서도 A등급을 받았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안정성과 효과성 가능성 면에서도 응급의료평가기관의 평균점수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A등급에 선정됐다.

[2021.12.30.]

시무식 개최, “혁신과 도약의 원년, 2022년” 강조



고신대복음병원은 1월 3일 오전 8시30분 1동 3층 강당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은 김영대 원목실장의 기도, 오경승 병원장의 신년사로 진행됐다. 시무식에서 오경승 의무부총장 겸 병원장은 “고신대병원이 미래 의료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며 “모든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 개원 70주년을 맞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A등급, 특수건강진단평가 S등급, 4주기 연속 우수내시경실 선정이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한해를 시작하며 2022년을 ▲진료프로세스 혁신 ▲중환자실 비율 확충 ▲협력병원과의 진료프로세스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스마트 헬스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통한 에코델타시티 진출 ▲정밀재생인공지능빅데이터 중점분야의 융복합연구 강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의 의지를 밝혔다.

[2022.01.04.]

마이다스행복재단, 고신대병원 차상위 계층 의료비 5천만원 기부 선행



IT기업 ㈜마이다스아이티가 운영하는 마이다스행복재단이 고신대병원에 취약의료계층을 위한 기부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고신대병원과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6월 기술협약 및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마이다스행복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고신대병원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2022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계층 환자에게 인당 100만원씩 총 50명에게 지급된다.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사장 겸 마이다스행복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신대병원과 업무적 사회공헌적인 면에서 서로 활발한 교류를 하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경승 병원장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마이다스아이티가 이번엔 고신대병원에 큰 힘이 되는 기부를 해주셨다.”면서 “소외계층 환우들을 돌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2.01.14.]

Focus View



4주기 인증의료기관 TFT 발대식 및 음압격리중환자실 확장개소



고신대병원 1월 17일 오전 병원 1동 3층 예배실에서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TFT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운형 QPS실장의 인증추진계획 발표, 오경승 병원장의 위촉장 수여식, 신동훈 부원장의 선서식이 진행됐다. 고신대병원은 내년으로 예정된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전 교직원들의 단합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발대식을 진행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전 교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료기관평가항목에 감염병 대응에 관한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추가되면서 음압격리중환자실 확장 개소식도 가졌다. 신동훈 부원장은 "4주기 평가항목에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를 신설하고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을 기존 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에서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2022.01.17.]

(주)피씨엘과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신대병원과 (주)피씨엘은 1월 20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치유센터 공동개발 및 스마트헬스케어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신대병원과 (주)피씨엘은 업무협약을 통해 ▲에코델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EDC(Eco Delta City) 하수처리시설 기반 감염병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 연구 협력 ▲다중면역진단키트를 활용한 코로나 공동대응 원천기술 개발협력 ▲다부처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상호협력 ▲기타 공동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제반업무 ▲해양치유센터 유지를 위한 협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에 힘쓰고 서구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고신대병원이 의료기술을 통한 의료기술 수출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2.01.20.]

고신대병원, 은성의료재단과 인적자원교류 및 학술지원 협약 체결



고신대병원은 은성의료재단과 인적자원교류 및 학술지원에 관한 협약을 1월 26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경승 병원장, 구정희 이사장을 비롯하여 각 병원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자이송, 진료결과 회신 등 환자관리를 위한 제반활동 ▲의학연구, 학술대회, 각종 세미나 등 의학정보교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선진의료기술 지원 및 시설 이용기회의 제공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관한 공동 협력방안 등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고신대병원은 은성의료재단 산하 11개 병원과 교육연구진료에 관한 제반 사항에 공동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보건증진과 의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호 유대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고신대병원과 은성의료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을 계획이다.

[2022.01.26.]

Focus View



고신대병원, 부산시 제8생활치료센터 방문 '의료진 격려하고 생필품 전달해'



고신대병원은 2월 9일 부산시 초량동에 위치한 제8생활치료센터 현장을 찾아 근무 중인 의료진을 격려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 및 근무자들을 위한 컵라면과 즉석밥세트 50박스(약 600인분)를 전달했다. 부산시 신규확진자는 3,035명(2월 9일 0시 기준, 출처: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 8생활치료센터에 고신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인 최중순 교수(가정의학과)가 종일 근무를 맡았다. 고신대병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지역 의료기관 중 가장 먼저 제23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파견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의료마비 사태와 지역 내 의료공백 차단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오경승 병원장은 "코로나19 초기 유행시기부터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두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날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9.]

부산EDC 스마트 빌리지내 웰니스 센터 개관

- '4차 산업과 의료의 본격 접목 시대 열었다'



고신대병원은 2월 14일 부산 EDC(에코델타시티, 이하EDC) 웰니스 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스마트 의료 시대를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경승 병원장을 비롯해 ▲이상중 에코델타 사업단장 ▲노기태 부산강서구청장 ▲박한 비바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이서연 서우 대표 등 여러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웰니스센터 소개와 함께 비대면 진료 시연을 진행했다. 부산 EDC 웰니스 센터는 고신대복음병원과 (주)비바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비대면 1차 협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신대병원의 간호사가 상주하여 스마트 빌리지 입주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수시로 고신대병원의 의료진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질병치료 뿐 아니라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오경승 병원장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규제로 묶여있던 의료기술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다는 데 본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2.02.14.]

'2022년 혁신형의사과학자공동연구사업병원협의체 성과교류회 개최'

-의료융합 선도모델,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의 기틀을 마련-



'2022년 혁신형의사과학자공동연구사업 병원협의체 성과교류회'에서 고신대병원 혁신형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단이 약 3년간의 주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혁신형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병원 차원에서 신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과의 연구자 간 협업연구를 통해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우수연구자로 수상한 고신대병원 강지훈 교수(가정의학과)는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당뇨 예측 모델 개발'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1단계에서 SCI논문 2편과 특허출원 2건의 성과를 도출한 강지훈 교수는 SCI 국제논문(IF 10 이상), 특허출원,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한국인 유전적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DNA 칩을 개발해 한국인 특성에 맞는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15.]

외래진료시간표

(2022년 3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내과 990-6101	이상욱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윤병철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식도정맥류
	서광일		●	●			●	●	●			간염,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이식, 간부전
	박현준	●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	●	●	●	●		●	●	●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김형준					●	●			●		간내과 일반진료
	조병학		●									간내과 일반진료
	정우혁				●							간내과 일반진료
심장내과 990-6105	차태준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			●	●		●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김현수		●	●		●			●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임성일	●				●	●	●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		●			●		●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		●					●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내분비내과 990-6102	최영식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권수경		●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김부경	해외연수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 암
혈액종양내과 990-6107	신성훈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호섭		●	●	●			●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			●		●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등의 항암 약물치료
	박이천	●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				●			●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현엽									●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990-6103	박선자	●	●	●	●	●	●	●	●	●	●	궤양, 물혹,암,염증 신경
	박무인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 원	●	●	●	●	●	●	●	●	●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	●	●	●	●	●	●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해외연수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정경원	●	●	●	●	●	●	●	●	●	●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칼라지아 (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최윤정	●	●	●	●	●	●	●	●	●	●	소화기 질환
	손민영	●	●	●	●	●	●	●	●	●	●	소화기 질환
호흡기내과 990-6104	정만홍				●					●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				●	●	●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		●		●		●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제훈	●	●	●	●	●	●	●	●	●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신장내과 990-6108	임 학	●				●	●	●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혈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	●			●	●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 (혈노,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	●			●	●		●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김예나		●	●	●					●		신장질환
	박영찬										●	신장질환
방사선종양학과 990-6395	박경란	●				●	●	●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			●	●			●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최지훈			●	●	●		●				두경부암,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제상	●	●		●					●	●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990-6267	류시정	●						●				통증관리	
	김두식			●					●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동희				●					●	●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옥					●	●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성형외과 990-6131	박진형	●	●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해외연수										당뇨발, 피부암, 하지재건, 두경부재건	
	김홍일					●	●				●	미용, 수부외과, 미세수술	
	김효영	●	●					●				눈꺼풀질환 (안검하수, 피부처짐증), 유방재건 (부분 절제), 피부 종양, 소아 수술	
	김윤수			●	●					●		미용(코 성형), 유방 재건 및 유방 성형, 체형 성형(비만), 피부암 및 거대 모반(소아), 흉터 성형, 욕창, 안면외상	
재활의학과 990-6156	김기찬	●		●					●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호중		●			●	●			●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영주		●			●	●	●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이재현	●		●	●				●		●	근골격계재활(허리통증, 목통증, 어깨통증, 디스크 및 관절질환), 척추시술클리닉, 초음파시술클리닉, 심폐재활, 위상성 뇌손상, 연하재활	
정형외과 990-6130	손정환										●	슬관절부병변, 관절염	
	권영호	●					●					미세수술, 수부병변	
	정소학			●				●				근골격계종양	
	김창수		●			●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최 영			●	●					●		소아정형외과, 슬관절	
	김지연	●					●				●	족부(발, 발목)질환 및 스포츠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안과 990-6140	이상준		●		●			●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해외연수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창주			●		●			●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임재완	●					●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가정의학과 990-6155	최종순			●					●		●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 요법, 특이증상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완화의학, 노인의학	
	공은희	●				●	●					암생존자 통합 건강관리, 임상영양, 가족건강관리, 금연, 기능의학	
	강지훈		●		●				●		●	암 경험자 평생 건강 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 클리닉, 유전체 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 클리닉, 노인의학	
핵의학과 990-6660	전성민		●				●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김희영								●			핵의학과 일반진료	
	김범수				●						●	핵의학과 일반진료	
정신건강의학과 990-5070	김호찬	●	●				●	●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 (조현병, 기분장애)	
	이상신					●				●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이윤나			●	●						●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일반 ※기분장애 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김현석			●	●				●	●		소아청소년정신의학 (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 성인의 소아청소년정신장애 (성인 ADHD, 성인 발달/지적장애) 및 보호자 교육 : 매주 목요일 오후	
산부인과 990-6120	김원규			●	●						●	●	부인암, 종양,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로봇수술, 단일공수술
	이태화	●	●			●			●				부인암,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고위험 산모
	오영림	●					●		●	●			부인질환, 산과
	윤항구			●							●		모체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로봇수술
	강태경		●	●		●	●		●	●			부인암, 부인질환, 부인과 감염질환, 호르몬요법,내시경수술,로봇수술
위장관외과 990-6182	윤기영	●	●						●				식도, 위장,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위식도역류질환,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김기현						●				●	●	복강경 위장관 수술 (위암, 위장관기질종), 대사비만수술
	김윤홍									●			위장관외과 일반진료

외래진료시간표

(2022년 3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두경부,갑상선내분비외과 990-6113	김구상				●						●	갑상선암, 갑상선양성질환, 고주파열치료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양송이	●	●			●		●	●		●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갑상선수술, 부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클리닉:금요일 오후※
유방외과 990-6113	김구상	●	●			●	●		●			유전성 유방암,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유전성유방암클리닉: 월 오전 /유방암경험자클리닉: 수 오후※
	최진혁	●			●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중앙성형클리닉: 목 오전※
	정성의			●	●		●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젊은유방암클리닉: 화 오후※
	이희승		●						●			유방암, 유방양성 질환
대장항문외과 990-6181	안병권			●				●				대장, 직장암,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현	●	●			●	●		●			대장항문클리닉
	이승훈				●					●	●	대장, 탈장, 복강경로봇수술
간담도췌장외과 ·이식외과 990-6112	신동훈	●	●					●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영일			●	●					●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췌클리닉
	문형환					●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조지훈						●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응급외과 990-6359	정주원				●							응급외과
	이철민								●			응급외과
	김영식						●					응급외과
알레르기내과 990-6152	김희규	●	●			●		●	●			만성기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최길순			●	●		●			●	●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비뇨의학과 990-5078	류현열	●				●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최 성		●	●				●	●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김택상	●					●			●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수환				●	●				●		로봇수술, 결석
	서원태				●					●		비뇨기계 일반질환
흉부외과 990-6127	박성달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김종인		●	●	●							일반흉부,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하지정맥류, 흉부외상
	조성호				●	●	●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이해영	●	●					●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성인심장질환, 흉부외상
	고택용						●		●	●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흉부외상, 일반흉부
	이상호									●		성인심장, 중환자, 외상
신경과 990-6106	유봉구	●		●	●	●						뇌졸중, 치매, 두통
	김명국		●		●	●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김민정									●	●	운동장애, 파킨슨
	허소영		●				●	●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이진형			●			●			●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치료
	이원구	●	●	●	●			●	●			수면클리닉, 뇌전증, 수술 중 신경계 감시, 두통, 어지럼증 ※수면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990-6136	이강대	●						●		●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이환호		●				●	●				이과 질환/만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인공와우이식
	권재환				●	●				●		비과, 중이수술, 안면외상성형
	이형신	●			●	●						갑상선암, 구강암 (설암), 인두암 (편도암, 하인두암), 후두암, 목의 혹, 침샘질환, 음성장애
	김주연		●	●					●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무호흡증, 코성형 클리닉
	김영준						●				●	일반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990-6123	홍유라				●			●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 (신생아 발열, 신생아 황달, 저체중 출생아, 지궁내 성장 지연, 과체중아, 무호흡,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태원혈인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형성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dimple, 배꼽 옥아종),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이정현		●		●		●	●				성장클리닉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 (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칼슘 및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장애)
	연구민	●				●					●	소아신경질환 (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오지은	●	●			●					●	소아감염질환(요로감염, 중이염,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 결핵(잠복결핵, 활동성 결핵), 불명열
	공섬김	●			●			●			●	소아혈액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정민영			●					●		●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의학
	최소윤			●			●				●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배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강우림								●			소아청소년과 일반
	전공의				●			●				
신경외과 990-6124	박용석	●	●			●		●				뇌혈관, 뇌종양
	조혁래	●	●					●	●			뇌종양, 두개저종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	●					●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	●				●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	●				●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피부과 990-6146	장민수	●	●			●	●					여드름/주사, 건선, 피부미용, 손·발톱색소질환
	박종빈			●	●			●	●			피부와 일반질환, 피부종양, 알레르기피부질환
	김준희	●					●			●	●	두드러기, 아토피피부염, 레이저/색소, 첼로이드/흉터
	전공의	●	●	●	●	●	●	●	●	●	●	피부와 일반질환
일반내과 990-6359	안영신	●	●	●	●	●	●	●	●	●	●	일반내과
호스피스완화의료과 990-6359	정원길	●		●		●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류마티스내과 990-6154	김근태		●	●		●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관절초음파 클리닉
	김윤경	●					●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관절초음파 클리닉
감염내과 990-6157	이진영	●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전민지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진 솔			●			●	●				감염내과 일반질환
치과 990-5150	김희진	●	●	●	●	●	●	●	●	●	●	치과보존과 일반질환
	서고은	●				●	●			●	●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
직업환경의학과의 990-6742	김정원	●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 (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					●		●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 경제적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섬김의 자세로 다가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비밀스런
생명의 신호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몸의 소리를
듣는데부터 시작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